

<나의 삶 나의 하나님>

또 한끼를 거르셨겠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성탄절 전야였습니다. 언제 나처럼 오돌오돌 떨면서도 새벽송 돌기는 우리들을 흥분시켰습니다. 가는 곳마다 평소에 사달라고 졸라도 사먹기 힘들었던 과자들이 쏟아지는가 하면 오밤중에 마음껏 소리내어 노래할 수 있다는 게 마냥 즐거워

눈길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날이 밝도록 그 산동네를 다 돌았습니다. 산꼭대기 마지막 집은 기도 할머니라 불리는 권사님 댁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무엇을 해서 생계를 이어나갔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약간의 정신지체가 있는 딸과 들이서만 살고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분을 기도할머니라고 불렀던 것은 권사님은 틈만 나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새벽 기도와 철야기도를 빠지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새벽송팀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차마 집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판자집이었습니다. 워낙 궁색한 동네인데다 그곳은 특히 심해서 우리 모두를 긴장시켰습니다. 우리는 아예 자루 속의 과자를 몇 개 꺼내들고 그 집 앞에 다가섰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한 소절을 부르는데 방문 앞에서 웅크리고 졸던 권사님이 맨발로 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구, 오셨어요? 우리 딸애가 성하면 우리도 같이 도는 건데....." 그러더니 권사님은 숨기듯 가슴에 안고 있던 비닐 과자봉지 하나를 내어 자루에 담은 것이었습니다. "아유, 권사님 왜 이런걸 사셨어요, 넣어두었다 미영이 주세요." 새벽송 팀장을 맡은 집사님이 비닐봉지를 도로 빼려는데 권사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난 아무 것도 드릴게 없네요. 찬양으로 수고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작은 걸 마련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말끝을 채 맺지 못하시는 노권사님 앞에서 우린 잠시 숙연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하루종일 품팔이를 하느라 피곤에 절은 채로 졸면서 새벽의 그 축제에 참여하고자 날이 새도록 기다리신 권사님은 한 봉지의 과자를 준비하시기 위해 또 한끼를 거르셨겠지..... -박순옥-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1년 교회생활: "QT하는 갈보리교인"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
제 3권 52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 12월 25일
☎520-9464/021-292-1639, ☒71 Khyber Pass Rd.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MERRY CHRISTMAS



성탄절에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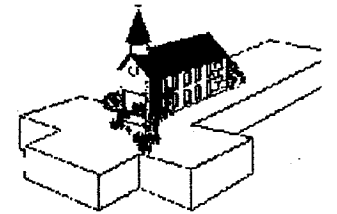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책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122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57(성탄절)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송 Hymn	113장	다 같이
기도 Prayer		김교섭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복음 1:18-25(신 1)	인도자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부부성가대 Couple's Choir		부부성가대
설교 Sermon	"예수를 맞이한 사람들"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115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atory Prayer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도자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

주일에배 12:00 | 수요일예배 7:30 pm | 금요일새벽기도: 6:00 | 아동, 학생, 청년부: 주일 1시

성탄절에 잊혀진 이쁜! 그 이쁜 예수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기에
성탄절을 즐겨워해야 합니다.

곳곳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 놓을 보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X-MAS
라고 쓴 것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X 자는 영어 알파벳의 X자가 아니
다. X는 헬라어의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첫 자인 '크스'자로서 이 뒤
에다 MAS자를 붙인 것이다. 그러므로 표기는 X-MAS로 할 수 있지만 읽
을 때에는 반드시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한다.